

# 마트 쇼핑카트, 경고문구는 더 확실히! 어린이용 안전벨트 의무화 한다

어린이용 쇼핑카트에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개정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쇼핑카트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를 태우는 쇼핑카트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입안되었다.”

최근 7년간의 안전사고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어린이용 쇼핑카트에 대하여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표시 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쇼핑카트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유통시설(백화점, 대형마트, 기타 쇼핑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해보면, 안전사고 896건(4년간) 중 쇼핑카트 관련 사고가 269건(29%)으로 가장 높았고, 또한 최근 7년간의 쇼핑카트 관련 안전사고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본 결과 0~3세까지의 어린이가 전체 사고의 44%(501건 중 220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기존 유아용에만 설치하던 안전벨트를 어린 이용에도 확대 적용하고, 주의사항 표시는 바탕재질과 동일한 색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너무 작게 붙어 있는 등 소비자 인지가 곤란한 경우가 있어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안전경고 취지의 그림 및 일정 크기(경고문구 5mm, 나머지 문구 3mm) 이상의 한글 문구를 바탕색과 대조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기술표준원은 의견 수렴을 거쳐 2011년 상반기중으로 강화된 안전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쇼핑카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등을 위해 관련 업계와도 긴밀한 협조를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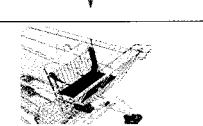
\* 문의 : 지식경제부 생활제품안전과(02-509-7247)



(마트 쇼핑카트의 유형)



<기존 B형 제품>



<개정안 적용 제품(예시)>



<안전상의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경화하게 사용할 것, 제품 15 kg, 어린이의 어린이인 탑승 가능>

<개정된 쇼핑카드 예시>